

# 본문문법적견지에서 본 중국어의 화제에 대한 분석

김 철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 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언어에 대한 본문문법적연구에서 화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본질과 문법적기능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것은 언어학연구와 교수실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본문문법적측면에서 중국어의 화제분석의 중요성과 본문속에서 화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화제를 본문문법적개념으로 보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첫째로, 앞뒤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독립적인 문장에서는 특별한 표식이 없는 명사적단어결합이 화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것과 관련된다.

례: 他来看你了。

(그 사람이 당신을 보러 왔소.)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주어와 화제의 특징들에 근거하여 볼 때 《他》는 웅당 주어로 보아야 하지만 이것을 화제라고도 볼수 있다. 실지로 언어적환경이 없는 조건에서 어떤 명사적단어결합이 화제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그것은 같은 명사적단어라고 하여도 서로 다른 언어환경에서는 화제로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이다.

례: 从前, 有一个人养了一群羊。(一天早上他去放羊时, 发现少了一只。)

(이전에 어느 한 사람이 양들을 기르고있었다. <어느날 아침 방목하러 나갔을 때 그는 한마리가 없어진것을 발견하였다.> )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우의 실례를 분석하면 문장의 맨앞에 놓이는 시간명사 《从前》은 화제로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진술의 기초, 서술의 출발점이라고 한 화제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从前》과 《一个人》중에서 어느 명사가 화제로 되겠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우에서 첫 문장만을 놓고볼 때 《从前》은 동사의 뒤에 놓여있는 다른 명사들인 《人》이나 《羊》에 비해 구조적으로 화제로 될수 있는 자격이 더 많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본문속에서 볼 때 매 단어들의 기능과 역할은 주어진 언어환경 즉 앞뒤문장들과의 관계속에서 결정된다. 우의 실례에서 본문의 전개와 서술에서 련결작용을 하고 기본 론하려는 대상으로 되는것은 《从前》이 아니라 《一个人》으로 보는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것은 둘째로, 표식화제문제와 관련된다.

일부 화제들이 표식화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문장앞에 놓이고 전치사와 같은 특정한 표식을 가지기때문이며 화제와 기본동사사이에 다른 명사적단어결합 즉 주어가 놓이기때문이다. 화제를 한개의 문장이나 부분문을 단위로 하여 고립적으로 연구하면 일면적인 결론에 떨어질수 있다.

실제적으로 문장속에서 어떤 단어가 화제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 즉 어떤 명사적단어결합은 전형적으로 화제로 쓰이며 또 어떤 명사적단어결합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전형적인 화제는 화제가 가질수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며 이런 화제를 중국어의 원형화제라고 볼수 있다.

한편 화제의 특징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명사적단어결합도 찾아볼수 있는데 명사적단어결합이 가지는 화제의 특징이 많을수록 화제로 리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많다.

중국어화제가 가질수 있는 총차적특징(기본특징, 부차적특징, 비본질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화제의 기본특징은 명사 또는 명사적성질을 가지는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문장이나 부분문들간의 련결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중국어화제의 부차적특징은 문장의 앞이나 동사의 앞에 나오며 특정한것 또는 확정된것을 가리킨다는것이다.

중국어화제의 비본질적특징은 술어동사와 의미적선택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것이다.

중국어화제의 이러한 특징은 총차성을 띠지만 모든 화제들이 이런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것은 아니다.

례: 牆上爬着很多壁虎。

(담벽에 도롱뇽들이 많이 기여다니고 있다.)

우의 실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牆上》이 화제라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很多壁虎》가 화제라고 주장하고있다.

중국어화제의 총차적특징에 따라 판단해보면 량자는 다 화제로 될수 있다. 단지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것보다 화제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을뿐이다.

《牆(上)》은 명사적단어결합으로서 확정대상을 가리키며 문장의 앞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기본특징과 두개의 부차적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很多壁虎》도 명사적단어결합으로서 우의 실례에서 그의 의미도 역시 구체적인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기본특징과 하나의 부차적특징을 가진다.

량자는 다같이 일련의 화제속성을 가지기때문에 모두 화제로 될수 있다. 그러나 《牆上》은 《很多壁虎》보다 부차적속성이 하나 더 많으며 화제로 될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

음의 실례에서처럼 뒤에 부분문을 하나 덧붙여볼수 있다.

례: 牆上爬着很多壁虎, 別去碰它。

1) 담벽에 도롱뇽들이 많이 기여다니고있으니 담벽을 다치지 마시오.

2) 담벽에 도롱뇽들이 많이 기여다니고있으니 그것들을 다치지 마시오.

우의 실례에서 두가지 번역은 다 가능하지만 1)이 2)보다 더 자연스럽다. 그것은 우의 실례에서 《0/它》를 《壁虎》로 이해하기보다는 《牆上》으로 이해하는것이 더 합리적이기때문이다. 첫번째 부분문의 《牆上》은 《壁虎》보다 화제로서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있기때문에 화제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따라서 다음 부분문의 《0/它》는 《牆(上)》으로 해석되게 된다.

중국어화제의 형성과정은 인입, 선택, 이음의 세 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중국어본문의 무표식화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화제가 인입되고 그에 대한 서술이 계속될 때 특별한 형태적표식이나 문장론적표식이 없는 경우 그것을 무표식화제라고 부른다. 이런 화제는 처음으로 인입될 때 그것이 화제인지 아닌지 가려보기가 힘들다. 오직 그뒤에서 되가리킴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혹은 생략에 의해 선택된 후에야 화제로 될수 있다. 다음의 실례는 무표식화제의 형성단계를 보여준다.

례: 1) 洛陽有个名歌女,

(락양에는 양녕라라고 부르는

2) 0叫楊葶羅,

이름난 녀가수가 있었는데

3) 0聪慧过人,

남달리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

4) 0以語言尖巧冠于一時。

한때 첫손가락에 꼽히였다.)

첫번째 부분문 1)에서는 명사 《洛陽》과 명사적단어결합 《名歌女》가 인입되었는데 뒤의 부분문 2)에서는 생략에 의한 되가리

킴으로서 후자를 선택하였으며 이 단어는 3)과 4)에서 련이어 묘사되면서 화제로 되었다.

화제의 측면에서 보면 《洛阳》이 《名歌女》보다 화제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1)은 대상의 존재나 출현을 나타내는 문장구조를 가지고있으며 그 목적은 앞으로 서술하여야 할 새 정보를 인입시키자는데 있다. 따라서 다음문장에서 동사앞의 낱은 정보가 아니라 새로 인입된 새 정보에 대하여 계속 서술하는것이 더 자연스럽다.

명사적단어결합이 화제로 인입되는 과정은 대상의 존재, 출현을 나타내는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을 가질수도 있다.

례: 1) 昨天一个朋友借给我一本书,

(어제 한 친구가 나에게 책 한권을 빌려주었는데

2) 我以为很好看,

아주 재미있는줄 알았으나

3) 结果一点意思也没有,

결국 전혀 재미가 없었다.

4) 所以, 我看了几页,

그래서 나는 몇페이지 보고나서

5) 就不看了。

그만두었다.)

실례 1)에서는 4개의 명사적단어 즉 《昨天》, 《一个朋友》, 《我》, 《一本书》들이 인입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화제로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있지만 《我》와 《一本书》만이 선택되었다. 실례 2)에서는 생략으로 《一本书》를 되가리키고있으며 실례 3), 4), 5)의 생략된 단어들도 같은 화제의 이음을 나타낸다. 위의 실례에서 화제의 인입은 존재나 출현을 나타내는 문장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술성을 가지는 문장에 의하여 실현되었는데 그속에는 하나이상의 명사적단어들이 언급되었다.

중국어본문의 화제형성과정은 세 단계를 무조건 걸쳐야 하는것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단계가 생략될수도 있다. 그러나 인입단계만 있고 다른 두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화제로 설정되었다고 말할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글말에서보다 입말에서 더 많으며 독백에서보다 대화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명사적단어결합이 인입된 후 인차 화제로 선택되지만 더이상 이어지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글말본문에서 화제는 사이에 중단이 있을지라도 대체로 인입과 선택의 두 단계를 벗어난다. 이때 중단은 보통 새로운 화제의 인입으로 하여 생기는데 이런 새 화제의 이음은 그리 길지 않게 된다.

다음의 실례를 통하여 짧은 화제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례: 1) 可是[许仙]在游西湖的时候呢, 不巧正好风雨大作, 下起了雨来。

(그러나 허선이 서호에서 유람을 하고있을 때 공교롭게도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2) 他坐在游船里面呢, 被雨水淋得很狼狈。

(그는 유람선에 앉아있었는데 비에 흠뻑 젖어 꼴불견이 되었다.)

3) 这时船呢, 正好到了孤山, 到了杭州西湖的孤山这个地方。

(때마침 배는 항주 서호의 고산이라는 곳에 다달았다.)

4) 这个地方呢, 就是有一个很著名的景致, 叫做断桥, 叫断桥。

(이곳에는 류다른 풍경을 자랑하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断桥라고 불리웠다.)

5) 他就在桥下避风雨。

(그는 바로 그 다리밑에서 비를 그었다.)

위의 실례에서 주요화제는 두번 중단되었다. 처음은 실례 1)의 《风雨》에 의하여 다음은 실례 3)의 《船》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风雨》는 인입되어 다음 부분문에서

다시 언급되었지만 화제로 선택되지도 못하고 이어지지도 못하였다. 화제 《船》도 실례 4)의 《这个地方》에 의하여 중단되었는데 《这个地方》은 앞에서 나온 같은 형식의 단어를 선택하여 화제로 되었다. 이 새로운 화제는 주요화제가 다시 출현한것으로 하여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였다. 실례 4)에서는 다른 명사인 《断桥》도 인입되었는데 이것은 화제로 선택되지 못하고 실례 5)에서 전치사단어결합의 형식으로 화제가 아닌 《桥》로 되었다.

우에서 본것처럼 무표식화제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인입, 선택, 이음의 세 단계를 거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로, 하나의 부분문이나 문장에서 제일 많은 화제속성을 가진 명사적단어결합이 화제에 가장 유사하지만 꼭 화제로 선택되지 않는다는것이며 둘째로, 명사적단어결합이 선택되어 화제로 될수 있으며 이어지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셋째로, 화제가 여러번 중단될수도 있고 여러번 이어질수도 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어본문에서 표식화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표식화제들은 형태적으로나 문장론적으로 명백한 표식을 가지기때문에 특별한 언어적환경이 없이도 부분문이나 문장의 범위내에서 구별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화제들은 화제의 일반적인 형성단계를 대표할수 없다.

예: 这棵树, 花小, 叶子大, 0不好看。

(이 나무는 꽃이 작고 잎이 커서 보기 싫다.)

将来的问题呢, 那就等将来再说。

(앞으로의 문제는 후에 다시 토론합시다.)

我现在只想完成学业。至于毕业后干什么, 我还没考虑。

(나는 지금 학업을 다 끝마칠 생각 뿐입니다. 졸업후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他来北京比我去上海更方便。

(그가 베이징에 오는것이 내가 상해에 가는것보다 더 편리하다.)

连“大”字他也不会写。

(그는 큰 <대> 자조차 쓸줄 모른다.)

우의 실례에서 밑줄을 친 화제들은 모두 문장론적위치나 특정한 문장론적구조를 통하여 뚜렷한 표식을 가지는 표식화제들이다.

우에서 본 몇가지 표식화제들의 공통점은 정보의 원천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낱은 정보를 담고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특정한 표식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이런 낱은 정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모두 명백한 사물이나 사실 또는 앞뒤문맥을 통하여 명백히 나타났거나 암시된 사물, 사실로부터 얻게 된다. 그것은 지어 훨씬 이전에 언급되었던 내용이나 서로 다른 형식의 대비를 통하여서도 얻게 된다.

표식화제는 낱은 정보를 담고 특정한 표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인입단계와 이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화제로 될수 있게 하여준다.

우리는 중국어본문의 연결과 조직에서 화제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그것이 개별적인 문장구조나 전체 본문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외국어 교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